DBpia

장신논단 Vol. 47 No. 4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
–기억의 영성과 범주화에 관하여

유 경 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Ⅰ. 서 론
Ⅱ. 기억
Ⅲ. 어거스틴의 기억이론
Ⅳ.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억이론
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 비교
Ⅵ. 결 론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47 No. 4 (2015. 12), 201-223
DOI: 10.15757/kpjt.2015.47.4.008

www.dbpia.co.kr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현대 뇌과학의 기억 이론은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서 기억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기억체계의 집합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기억을 다양한 기억체계로 분류한 최초의 시도는 어거스틴(Augustine)의『고백록』에서 찾을 수 있다. 어거스틴의 기억 이론은 최근 신경과학의 자서전적인 삽화적 기억(episodic autobiographical memory)을 잘 보여주며, 이는 최근 기억에 관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인지과학적 연구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특별히 기억이론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어거스틴의 기억에 관한 이해를 근거로『신학대전』에서 기억을 감각적 기억(sensory memory, passions of the first sensitive)과 지적 기억(intellectual memory), 두 종류로 구분한다. 아퀴나스는 정신적 상(image)을 저장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심상(imagination)의 기능으로 설정했다.

본 논문은 한국 기독교학계 내에서 신학과 뇌과학의 학제 간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양자 간 대화를 위한 예비연구로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정리한다. 기억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 이해를 이해함으로써, 현대 뇌과학 연구 및 이론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첫째, 뇌과학의 기억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에 대한 예비 검토의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둘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통하여 뇌과학적 관점에서 기억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본다. 셋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각 이론이 현대 뇌과학의 기억이론과 어떤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신학적 관점에서 뇌과학과 통섭의 가능성을 전개한다. 필자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통하여 기억의 영성적 본성에 대한 강조와, 범주화와 연결된 공동체성, 그리고 기억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기억,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기억의 영적 본성, 기억의 범주화

www.dbpia.co.kr

DOI: 10.15757/kpjt.2015.47.4.008

I. 서 론

오늘날 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억에 대한 이론은 하나의 보편적인 기억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체계가 존재하며, 각 기억체계는 독특한 기능적, 또는 보조적 실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과학적 연구들이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억체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멘느 드 비랑(Maine de Biran, 1766-1824)이었다. 그는 최초로 기억을 기계적 기억(mechanical memory), 감성(sensitive) 기억, 재현적(representative) 기억으로 분류했으나, 그의 관점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장–크리스토프 카셀(Jean-Christophe Cassel) 등의 분석에 따르면, 기억을 분류한 최초의 시도는 어거스틴(Augustine)이 『고백록』 10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 이론이라고 보고 있다.

어거스틴은 비록 기억 체계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회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면 성찰을 바탕으로 기억을 구분하여, 감각적(sensible) 기억과 지적(intellectual) 기억, 기억들에 대한 기억[회상], 감정과 격정(passion)의 기억, 그리고 망각의 기억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이러한 기억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자신의 경험들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어거스틴의 기억 이론은 최근 기억에 관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인지과학적 연구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간 기억의 기능에 있어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자서전적인 삽화적 기억(episodic autobiographical memory)은 우리의 인격적 역사의 사건들을 저장하는데, 특히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며, 이렇게 저장된 내용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적 시간여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이러한 기억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였다는 것이다.[1]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기억의 분류는 뇌–인지과학적 연구가 있기 이전에 사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현대 과학적 기억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는 것이다.[2]

---

1) 정신적 시간여행(mental time travel)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을 기억하고 사고하는 주관적 시간, 인식적 시간을 의미한다.

2) Jean-Christophe Cassel,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www.dbpia.co.kr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특별히 기억이론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어거스틴의 기억에 관한 이해를 근거로 『신학대전』에서 기억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기억이란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저장한 일종의 감각적 기억(sensory memory, passions of the first sensitive)이며, 다른 하나는 지적 기억(intellectual memory)이다. 아퀴나스는 정신적 상(image)을 저장하는 행위는 기억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를 심상(imagination)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설정했다. 감각적 기억이란 특별한 감각들로는 인식될 수 없는 개별적인 감각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적 기억과는 구별된다. 아퀴나스는 지적 기억이란 보편적인 것만을 인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용도와 그 과거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물체의 용도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모든 감각적 경험을 통해, 그 물건이 유용한지 해로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필자는 한국 기독교학계 내에서 신학과 뇌과학의 학제 간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글이 양자 간 대화를 위한 예비연구가 되기를 바라며,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현대 뇌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뇌과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전통적인 신학에서 뇌의 기능과 연관하여 기억과 같은 신학적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하는 것도 장차 뇌과학과의 대화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억에 관하여 뇌과학의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에 대한 예비 검토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둘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통하여 뇌과학적 관점에서 기억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이 이론이 현대 뇌과학에서의 기억이론과 어떤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신학적 관점에서 뇌과학과 통섭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뇌과학의 지식과 신학적 인식론 상호간의 통섭을 위한 예비단계를 구성하여 보도록 하겠다. 특히 결론에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과 영성적 범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도록 하겠다.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 (March 2013), 21-22.

www.dbpia.co.kr

Ⅱ. 기억

현대 뇌과학의 기억능력은 배아초기부터 형성되는 뇌의 정신활동과 연관이 된다. 특히 뇌는 수정이 되는 즉시 세포분열을 시작하는데, 이 때 뇌 세포는 감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과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은 이미 배아 선조세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배아 이전의 정자와 난자의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여 배아, 그리고 태아 이후에는 대뇌피질의 형성과 아울러서 학습된 환경적인 정보들을 기억의 형태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체계는 지각, 기억, 말, 의식과 같은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대뇌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 해마 등이 기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기억은 뇌기능과 연관하여 인간의 유전적 요인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개개인의 지능의 정도에 의하여 좌우되며,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4] 따라서 기억은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반영되는 지속적인 표상이라고 정의된다.[5]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경험과 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때 관찰자와 주체자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찰자란 과거의 내용을 회상할 때, 그 내용을 제3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주체자의 입장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다. 이 두 시스템의 조합에 의한 기억이란 기억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심상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뇌의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단기 기억은 수초부터

---

3) 김훈석, 신현주, 『기억력의 비밀–EBS 다큐프라임』 (서울: 북폴리오, 2011), 35-40; Christof Koch, *The Quest for Consciousness: a Neurobiological Approach*, 김미선 역, 『의식의 탐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75.

4) Daniel Tammet, *Embracing The Wide Sky*, 윤숙진, 김민경 역, 『뇌의 선물』 (서울: 홍익출판사, 2009), 57-67.

5) Bernard J. Baars and Nicole M.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Introduction to Cognitive Neuroscience*, 강봉균 역, 『인지, 뇌, 의식: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서울: 교보문고, 2010), 249.

6) Daniel Tammet, 『뇌의 선물』, 74-76.

www.dbpia.co.kr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기억이며, 이 기억이 장기화 되어 여러 달, 또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보존되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다. 뇌과학에서는 기억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일종의 '보상'개념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기억의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향기나 색, 또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 등은 기억을 해내는 사람의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며, 이 기억이 유발되는 어떤 기억의 맥락에 연결될 때, 회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7]

기억과 연관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망각'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억의 정보가 복잡하거나 장기기억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사전 행동 방해'나 새로운 정보가 과거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방해하는 '반동 방해'가 발생할 때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8]

기억하기 위하여서는 기억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언어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어의 뜻이나 이와 연관된 의미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area)'과 화술이나 언어의 문법적 구조의 형성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브로카 영역(Broca's area)'이 깊게 연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9] 그리고 같은 기억이라도 동사는 명사보다도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맥에 의하여 동사의 의미가 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10]

기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일상적인 내용을 의식적으로 회상하는 '서술적 기억'과 의식적이기 보다는 몸의 경험을 통한 반사작용이나 감정과 같은 자연스러운 기억인 '비서술적 기억'을 통하여 기억은 강화된다. 서술적 기억은 언어나 비언어의 형태로 존재를 서술하고 언급하는 외현(explicit)기억으로서 쉽게 형성되고 잊히지만, 비서술적 기억은 의식적 각성이 따르지 않는 암묵적인(implicit) 반복을 통하여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운동감각을 통한 비서술적

---

7) 위의 책, 86-87.

8) 위의 책, 94.

9) 위의 책, 118.

10) Richard E. Nisbett, *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서울: 김영사, 2004), 145.

11) Mark F. Bear, Barry W. Connors, and Michael A. Paradiso, *Neuroscience: Exploring the Brain*, 강봉균, 감경윤, 권오주 역, 『신경과학: 뇌의 탐구』 (서울: 바이오메디북, 2009), 727-29; Bernard J. Baars and Nicole M. Gage, 『인지, 뇌, 의식』, 272.

www.dbpia.co.kr

기억과 같은 것은 몸의 운동 이미지나 동작을 기억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12)]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억의 작동을 통하여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기억이란 어떤 정보나 경험을 보유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일차적으로 감각적인 것을 종합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형태로 구성하여 범주화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13)] 따라서 기억을 통하여 인간은 감각과 느낌,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결합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14)] 이러한 절차적 기억의 학습을 통한 기억의 강화는 생활방식을 통하여 습관의 기초가 되며, 일차적인 감각기억들은 기억의 토대로서 평생 지속되게 된다.[15)]

오늘날 주류 신경과학에서 상정하는 기억 모델은 '회상(recollection)'에 집중하는데, 이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기억이나 회상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며, 인지신경과학은 기억의 기능을 보조하는 신경 구조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기억에 대한 신경과학의 연구는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체계와 기본적인 기억 과정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저장되며, 출력되는지에 연구를 넘어서고 있다.

즉, 기억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능력, 즉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데에 생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또한 이를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신경과학에서 보는 기억은 기본적으로 복잡하며, 다차원적 과정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은 단일한 과정이 아니며, 기억에도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으며, 각 기억의 종류마다 이에 관여하는 신경 과정 및 다른 신경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6)]

---

12) Robert Root-Bernstein, *Spark of Genius*, 박종성 역,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225.

13) 위의 책, 392.

14) 위의 책, 392. 405.

15) Christof Koch, *The Quest for Consciousness: A Neurobiological Approach*, 김미선 역, 『의식의 탐구』 (서울: 시그마출판사, 2006).

16) Simona Ghetti and Patricia J. Bauer, ed., *Origins and Development of Recollection: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and Neuro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vii-viii. 시모나 게티(Simona Ghetti)와 패트리샤 바우어(Patricia J. Bauer) 등은 어거스틴의 기억에 대한 이러한 메타포적인 정의가 오늘날 심리학, 신경과학, 인지과학 등의 연구 방향성에 좋은 힌트

www.dbpia.co.kr

한편 기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뇌의 신경세포는 뉴런반응을 통하여 특정기억들을 저장한다. 신경세포들은 기억이나 감정, 그리고 여러 정신 현상들은 신경세포간의 연결망인 시냅스를 통하여 정신작용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한다.[17] 대뇌피질에서 전전두피질은 기억에 관한 초인지를, 하측 두피질은 감각정보와 기억저장을, 측두엽의 신피질은 장기기억을, 측두엽 아래의 해마와 내측두엽은 서술기억을, 그리고 간뇌는 인식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또한 변연계의 연합영역과 편도체는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특히 단기기억이 현재 경험에 의하여 활성화된 해마와 내측두엽의 활성화가 강화될 때, 장기기억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다.[19]

한편, 과거로부터 의식적으로 환기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한 기억의 범주화를 일화 기억(episodic momory)이라고도 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기억을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서술적이지만, 기억과 사건자체를 혼돈하지는 않는다.[20] 한편,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동물에게 개체별로 기억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기억은 의식과 함께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다.[21] 특히 기억의 형태 중에서 영상 기억은 시각적 의식과 연관이 되며, 신경활동의 도움에 의하여 잠시간 유지되며, 저장된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유지기간이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22]

지금까지 살펴 본 기억의 과학적 이해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두 신학자가 기억에 관하여 현대적인 정교한 이론들을 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기억에 관한 해석은 현대 뇌과학의 이론에 버금가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17) 박문호, 『뇌-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87.

18) Bernard J. Baars and Nicole M. Gage, 『인지, 뇌, 의식』, 288; Mark F. Bear 외, 『신경과학: 뇌의 탐구』, 734-40.

19) Bernard J. Baars and Nicole M. Gage, 『인지, 뇌, 의식』, 54.

20) Christof Koch, 『의식의 탐구』, 209; Bernard J. Baars, Nicole M. Gage, 『인지, 뇌, 의식』, 268.

21) Christof Koch, 『의식의 탐구』, 214.

22) 위의 책, 218.

www.dbpia.co.kr

Ⅲ. 어거스틴의 기억이론

어거스틴의 기억의 분류는 분류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고백록』 10권을 구성할 때에, 먼저 기억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로부터 순서대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한 후에, 감각적인(sensible) 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 온 기억의 내용을 심상으로 저장하며, 지식 기억은 우리가 아는 것, 기억을 통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기억을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심상으로서의 기억은 감각적 기억으로, 회상으로서의 기억의 형태는 기억에 그 자체로 저장된 내용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의 기억 내용은 합리적 지적 능력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늘날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이라 부르는 무의식적 기억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23]

어거스틴의 심상으로서의 기억은 감각기억(sensory memory)과 연관된다. 그는 기억은 마치 "창고와 같아서 감각을 통하여 지각된 여러 가지 사물의 영상들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24] "나는 이 기억이라는 창고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것은 곧바로 나오고, 어떤 것은 깊숙한 구석에서 찾아 끄집어내듯 한참 찾은 후에야 나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무더기로 함께 나와서 우리가 찾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할 때는 '혹시 당신이 찾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듯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25] 어거스틴은 기억에 관한 영상들이 감각을 통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른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기억은 그의 의지와 합리성에 의하여 회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기억 자체가 신비는 아니다. 즉,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은 그 사건 자체를 기억의 내용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만을 저장한다고 그는 파악하였다. 적어도 어거스틴은 기억과 기억의 내용을 분리하였으며 감각 기억을 기반으로 하면서, 감각 기억보다 고차원적인 기억의 기능에 관하여 관심을 이동시킨다.

감각기억이 감각 기관을 통해 저장된 세계에 대한 이미지 자체라면, 이렇게

---

23) Jean-Christophe Cassel,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 (March 2013), 27.

24) Augustine, *Confession*, 선한용 역,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23.

25) 위의 책, 323.

www.dbpia.co.kr

저장된 이미지를 재현된 형태로 변형하여 기억의 내용으로 출력하는 전 과정이 어거스틴은 의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감각을 통하여 들어와 쌓여 있는 영상들을 마음대로 불러내 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26] 감각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기억의 주체는 자신에 대한 기억(memoria sui, memory of self)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아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색과 소리 그리고 감정이 합성된 이미지로서의 기억들을 의지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학문의 지식이 기억에 저장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을 구분하였다.[27]

어거스틴의 기억과 연관한 자아의 연속성 개념은 그가 1-9권까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이를 반추함으로써, 미래의 그의 행위에 대한 기대로 연결하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어거스틴이 감각 기억을 기억의 첫 번째 장소로 명명하였다면, 기억의 두 번째 장소는 일종의 '지식 기억(knowledge memory)' 또는 지적 기억이라고 불리 울 수 있다. 감각 기억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지식기억은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인간은 내재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sine qua none)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어거스틴은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억 속에는 학문에서 배운 지식이 잊히지 않고 간직되어서, 기억의 작업을 통하여 자아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지식 기억은 이미지의 형태가 아니라, 파편의 형태로 산만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28] 이는 마치 존재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기억 속에 혼돈된 상태로 있다가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기억으로 구성하는 이치이다. 이와 같이 지식기억은 감각기억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감각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과 연합하여, 그 기억에 본래 선험적으로 가진 기억과의 연합 및 분석 작업을 통해 마음에 어떠한 지식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29] 따라서 기억은 감각기억과 지식기억을 회상함으로써 기억을 강화하여 간다. 어거스틴은 파편과 조각 형태로 저장된 지식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은 기억

26) 위의 책, 324.
27) 위의 책, 327.
28) 위의 책, 328.
29)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해석은 플라톤의 "미노(Meno)"에서 말하는 상기설(anamnesis)과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본다. 위의 책, 328. 각주 9 참고.

www.dbpia.co.kr

간의 조합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때 인간의 정신은 이미지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들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작업 과정을 또 다른 기억에 연결하여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30]

어거스틴은 '기억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의 자아가 미래의 자아와의 연속성에서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31] 따라서 마음과 영혼의 감정과 욕망, 기쁨, 두려움, 슬픔과 같은 격정에 대한 기억 또한 일종의 지식기억처럼 작용하는 것이다.[32] 그는 마음과 영혼 그리고 기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란 일종의 마음의 위장과 같다고 보고 있다.[33] 그러나 어거스틴은 기억의 작용에서 망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 자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망각조차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기억의 잠재력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34]

어거스틴은 인간 이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기억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는 짐승이나 새들조차도 기억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만약 기억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굴이나 둥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많은 것들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하였다.[35]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동물의 기억은 그 몸에 대한 사실, 즉 감각기억만을 요구하는 심상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고차원적인 지식기억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인간만이 탁월한 것으로 본다.

어거스틴에게 기억은 인간에게만 적절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억의 내재적 능력이 인간을 시간으로부터 탈출하여, 개념 세계의 비시간적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내재적 사색의 방법으로 기억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하나님을 탐구함으로써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그의 소망에 있으며, 그의 기억 이론은 기억 자체보다는 기억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는

30) 위의 책, 328-29.
31) 위의 책, 330.
32) Jean-Christophe Cassel,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 (March 2013), 28-30; Augustine, 『고백록』, 331-32.
33) Augustine, 『고백록』, 331.
34) 위의 책, 334-35.
35) 위의 책, 336.

www.dbpia.co.kr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36] 그는 기억을 초월하여 참된 선이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37] 어거스틴은 단적으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함으로서 기억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38]

기억을 통하여 간직되었던 어떤 물건의 이미지 때문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발견하면 기뻐하듯이,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강조하며, 이 행복과 기쁨은 인간의 심성 속에 기억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인간의 소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며, 행복은 물질적인 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며,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9]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억의 작용에 의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억의 심상에 새겨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어거스틴은 진리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식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기억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40] 그러나 기억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기억을 통하여 심상의 이미지와 다양한 감정, 마음, 그리고 기억이나 망각 자체는 변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초월하여 계심을 주장하였다.[41]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4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은 감각기억과 지식기억을 분류하였으며 감각기억이 불안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억의 유한성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 안에 내재하

---

36) 위의 책, 336; Jean-Christophe Cassel,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 (March 2013), 37-38.

37) Augustine, 『고백록』, 337.

38) 위의 책, 337.

39) 위의 책, 337-42.

40) 위의 책, 345.

41) 위의 책, 346.

42) 위의 책, 347.

www.dbpia.co.kr

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킴으로서 기억의 기능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기억과 기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억하려는 의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이라는 맥락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Ⅳ.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억이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 1부 전반부 79문, 6-7항과 1부 후반부, 32문 3항, 그리고 2부 후반부 49문 1항에서 기억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1부 전반부 79문 전체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한 질문으로, 그 중 6항은 기억과 영혼의 지적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관하여(De trinitate)" 10권 11장을 인용하며, 기억과 이해, 의지는 모두 하나의 정신이라고 설명하며 삼위일체의 이미지 또한 기억과 이해, 그리고 의지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영혼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의 심적 능력에도 있다고 보았다.[43]

기본적으로 기억의 본질은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류(類, species)의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류가 이러한 기억의 본질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강조한다. 일단 이해되지 않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감각적 기억, 즉 수동적 기억에 종속된다고 할 때, 인간의 지적 경험, 즉 추상적 개념이나 사고, 논리에 대한 기억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기억의 경험을 토대로 아퀴나스는 지적인 류의 것들을 저장하는 지적 장소가 있다고 보면서, 지적인 기억 개념을 설정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 부분으로 나뉘어 있듯이, 감각적 기억이 물질적인 경험에 대한 것이라면, 지적 기억은 비물질, 곧 정신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억은 두 가지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관점이다.

기억을 통하여 무언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의 상태

43) Thomas Aquinas, "Whether an Angel's Act of Understanding Is His Substance?" "Whether There Is Will in the Aangels?," in *Summa Theologica*, Christian Classi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pdf [2015. 9. 10 접속].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omma Theologica)』 영문번역본은 Christian Classis Ethereal Library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www.dbpia.co.kr

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기억을 단지 고정적인 류의 능력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각적인 기억으로서의 기억만을 언급할 뿐이다. 기억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과거의 무언가로서의 대상을 포함시킨다면, 이때의 기억은 지적인 기억이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 즉 개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감각적 기억을 의미한다.[44] 그러나 지적인 것(the intellect)은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에 비하여 더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어떠한 형상들을 취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은 감각적인 기억에 영향을 주지만, 지적인 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기억은 영혼의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기억 행위는 하나의 능력이며, 기억의 대상, 즉 경험되고 인식된 류의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아퀴나스는 영혼의 능력은 그 능력이 지향하는 대상들의 형식적인 면에 따라 구별된다고 본다. 만약 어떠한 능력 그 자체가 그 대상의 보편적인 비율에 따라 그 대상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때 구별되는 다양성은 그 대상의 개별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빛이라는 힘은 대상들의 색을 결정하는데, 특히 그 대상이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빛이나 색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게 된다. 따라서 감각적인 인식은 이렇게 대상의 개별적 차이에 영향을 받는 반면, 지적인 기억이나 지적인 능력은 그 대상에 따라 변하거나 다양화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은 존재의 보편적인 비율 하에 그 대상을 인지한다. 감각하는 주체나 감각의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변화하는 감각적 능력에 반해, 지적 능력은 보편적인 실존의 성질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이를 수동적 지식(passive intellect)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수동적으로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아퀴나스는 능동적 지식과 수동적 지식을 구분 하는데, 이 두 작용은 동일한 대상을 감지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다른 잠재력을 인식한다. 능동적 지식은 그 대상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로서 인식한다면, 수동적 지식은 대상의 실존의 움직임에 따라 작용한다. 이렇게 지적 능력이 수동적 능력과 능동적 능력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그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따른 인식 방법의 차이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지적 기억은 지적 능력과 다르지 않다.[45]

---

44)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1st Part of 1st Part), Question 79, Article 6.
45) 위의 책, Question 79, Article 7.

www.dbpia.co.kr

1부 후반부 32문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에 대한 기억이 쾌락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즉,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잠재적인 경험과 과거의 지나가 버린 시간의 경험이 현재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쾌락은 현재의 문제로 규정한다. 즉, 쾌락은 적절한 선의 실존으로부터 유발하는데, 이러한 실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된다. 먼저 선은 지식을 통해서, 지적인 주체가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실존한다. 두 번째, 선은 현실로서 실존한다. 아퀴나스는 지식을 통한 실존은 기억을 통해 작용하고, 현실을 통한 실존은 희망의 기쁨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망과 기억은 그 자체로 현실의 쾌락을 가능하게 하면서, 아직은 현재의 실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신적 작용을 의미한다.[46]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의 특징은 기억과 같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행동을 덕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모든 행동의 선악 여부는 그 행위가 덕의 완전성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을 감각적 기억과 지적 기억으로 구분함으로써, 이 두 범주의 기억은 영혼에 있어서 다른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신중함(prudence)의 덕을 논의하는 중에 2부 후반부 49문 1항에서 기억과 지적인 신중함의 덕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신중함의 덕은 지적인 덕의 일부로서 경험과 시간을 통해 강화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따른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경험은 많은 기억들의 결과이며, 신중함은 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억은 신중함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47] 뿐만 아니라, 신중함 자체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개별적인 사건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중함의 일부로서의 기억은 감각적 기억, 즉 개별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정보 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는 지적 기억과 모두 연관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완전하게 하는 네 가지 방식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로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 기억은 긍정적 기억보다 인간의 영혼에 더 이미지를 각인하였기 때문에 더 도출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억은 어렸을 때 본 것을 더 잘 기억하듯이, 물질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형상화되는 것이 추상적 기

46)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Question 32, Article 3.
47)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I, Question 49, Article 1.

www.dbpia.co.kr

억을 재구성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기억에서 다른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보다 주의 깊게 순서를 잘 지키는 방식으로 신중해야 한다. 세 번째, 본인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사려 깊게 열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건이나 사물이 마음에 더 많이 형상화 될수록 그 기억이 잘못되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종 성찰을 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기억에 관한 습관은 이차적인 본성이라고 본다.[48]

V.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기억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물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감지 없이도 인간은 물리적 실체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백합과 제비꽃의 향기에 어떤 차이가 없음에도 이 두 꽃의 숨결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억을 공간으로, 즉 수많은 심상들의 창고로서, 감각을 통해 얻어진 모든 종류의 인식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에 그 심상들을 회상하는 공간으로 이해했다.

어거스틴의 공간으로서의 기억은 오늘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인 두뇌라는 물리적 실체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기억만을 이용하는 능력은 인간의 배아 발생 초기부터 시작된다. 만 2세 이전의, 말하기 이전 단계의 유아들도 정확한 순서에 따라 어떠한 행위의 연속성을 인지하고 그대로 따라할 줄 안다. 만 2세를 전후로 기억의 연쇄 회상 능력이 극대화되고,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기억에 대한 보다 세련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과거 경험에서의 감정과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관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과 재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어거스틴의 기억이론은 현대 심리학, 신경과학의 기억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어거스틴의 감각기억은 의미기억(semantic memory)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감각기억이 심상을 형성하고, 기억 자체에 어떤 육체적 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기억의 재현적이고 명제적인 기억과 연관

48) 위의 책, Question 49, Article 1.

www.dbpia.co.kr

된다. 내용 없는 회상, 즉 순전한 지적 기억은 일종의 순수한 지적 의식(noetic consciousness)이며, 어거스틴이 기억을 하나의 저장소로 보는 관점은 오늘날 의미 범주(semantic categories)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49] 기억의 내용이나 심상이 파편적으로 산개해 있다는 표현은 기억의 인출과정에서 이러한 파편을 함께 재조합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서의 기억은 일화기억(episodic memory)으로서 시간과 장소, 대상에 집중한다. 따라서『고백록』이 특별히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행위를 유추하는 것은 일화기억의 과거와 미래를 보존하고 의미기억으로 통합되는 독특한 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50]

오늘날 인지 신경과학의 기억 이론은 다양한 임상적 관찰과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는 복합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거스틴의 기억 이론의 공헌은 기억이 하나의 동일한 체계(homogeneity)가 아니라, 이형적(heterogeneous)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망각의 문제, 기억의 기억, 그리고 기억의 한계 등을 논함으로써 기억의 다양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는 어거스틴의 기억이론이 현대 인지신경과학이 인지적 분열 환자들을 통하여 알아 낸 기억의 내용과 기억의 분리에 대한 이론들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을 찾는 그의 사색의 과정 및 질문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기억의 다양한 내용과 기능들에 대해 사색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통합하기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51]

한편, 아퀴나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기억이론처럼 감각적 기억은 인간의 유기적 신체(bodily organism)에 존재한다. 반면, 지적 기억은 우주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저장한다. 지적 기억의 장소는 수동적인 지적 분배지역, 즉 이해 능력에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지적 능력을 보조하는 것이 바로 능동지성(intellectus agens) 개념으로, 이는 감각 정보를 통틀어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감각 정보로부터 우주적인 지식(species intelligibilis)을 뽑아낸다. 이 우주적 지

49) '의미 범주'란 어떠한 개념에 대하여 기억은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 또는 행위를 범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50) Jean-Christophe Cassel,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 (March 2013), 31.

51) 위의 책, 37.

www.dbpia.co.kr

식은 바로 수동적 지적 능력의 자리로 옮겨진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바탕으로 지적 기억이 따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억하는 주체의 안정성에 비례하여 더 완벽하게 그 결과를 함유하기 때문이다.[52]

아퀴나스는 과거의 감각적 기억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억의 대상과 지식 행위의 조건이라고 본다. 이는 특별히 감각적 기억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현재의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대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볼 때, 과거는 임시적이고 우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감각적 경험에 따라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 기억은 그 자체로 지적인 것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인 것 자체는 인간을 인간으로 이해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가 현재나 과거, 미래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연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해하는 지적 행위로서의 기억은 감각적 영역에 제한되지만, 지적 기억 자체는 인간의 주체성에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불변하며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 주체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 기억은 비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과 같이 아퀴나스의 지적 기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기억을 인간의 영성적 본성으로 이해할 것과 둘째,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의 범주화와 그리고 셋째, 기억의 주체성에 관한 것이다.

첫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 기억은 뇌기능의 인식론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영역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절차기억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인간은 선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숨겨진 지식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거스틴에게 감각기억은 지식기억과

52) Thomas Moore, "Memory,"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0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11), http://www.newadvent.org/cathen/10174a.htm [2015. 9. 2 접속].

www.dbpia.co.kr

연관이 되며, 나아가 고차원적 기억을 통하여 자아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영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아퀴나스 또한 기억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동적인 기억의 지적능력이 능동지성과 연결되어야 할 당연성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한 기억으로부터 우주적인 지식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지적 기억은 능동지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뇌과학에서 인간의 기억을 인식론과 기능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사고 영역에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서 보다 신학은 뇌과학과의 대화를 통하여 고차원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물음의 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억의 생물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통하여 초월적 의미를 묻는 인간의 사고체계는 기억을 뇌의 부수현상에 국한하지 말고, 환원 불가능한 영성적 본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 기억은 학습됨으로써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는 기억의 공동체적 특성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에게 기억은 배움으로써 상기되는 마음의 공간이었다. 특히 기억은 진리와 오류와 같은 선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적 심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힘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주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도 기억을 통하여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 아퀴나스에게도 인간은 가능태의 질료이며 감각에 의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지성이 능동지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기억이 훈련되고 학습됨으로써 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어거스틴은 기억과 지식, 그리고 의지를 영혼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지식과 의지가 기억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아퀴나스에게서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기억이 학습되어야 함을 더 강조하였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학습에 대한 강조는 윤리학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현대 문명은 인간을 기억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정보 습득을 위한 효율과 속도의 경쟁에 기억을 기능적으로 이해하여 뇌를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거스틴은 과거의 일화기억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기억으로서 통합되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퀴나스 또한 기억을 기억주체의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지적기억을 강조함으로써 기억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억이 개인의 인식작용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범주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기억은 의미의 범주화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기억이 강화되어야

www.dbpia.co.kr

하며 이런 맥락에서 집합기억과 같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53] 기억이 서술과 비서술적 언어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 기독교신학에서 강조하는 '서사공동체'의 특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기억을 통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기억의 영성적 본성과 의미의 범주화가 가능할 때 기억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 경우 타율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획일화된 학습과 편견의 문명, 그리고 제도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아닌 차별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기억의 차원에서 주체성은 기억하는 자가 기억하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기억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발견하였으며 아퀴나스도 지적기억을 통한 능동지성의 참여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기억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의식 속에서 구조화하며 나아가 주체적인 사회적 행위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 기억이 많은 심상을 담고 있지만 이를 의미 있게 회상하기 위하여서는 기억의 주체적 의식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억은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인간의 뇌 속에 많은 심상을 저장하고 인간의 생명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이론은 기억을 통한 영성적 본성과 의미의 범주화 그리고 기억의 주체성을 중시함으로서 현대 뇌과학의 기억이론을 넘어서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 문명의 파편화된 일상과 자본주의적 경쟁의 체계 속에서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상기하여야 할 기억요소들을 강화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억 이론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53) Antonio R. Damasio, *The Feeling of What Happens*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Inc., 1999), 121-25.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기억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며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특히 자아개념의 상위체계인 '자서전적 자아(autobiological self)'의 역할이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자서전적 자아는 추리력과 상상력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www.dbpia.co.kr

참고문헌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Christian Classi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pdf [accessed September 10, 2015].

Augustine. *Confession*. Translated by Sun Han-Young. *Gobaengrok* 『고백록』.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3.

Baars, Bernard J., and Nicole M.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Introduction to Cognitive Neuroscience*. Translated by Kang Bong-Gyun. *Inji, noe, uisik: Inji-shingyeong gwahak ipmunseo* 『인지, 뇌, 의식: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Seoul: Kyobomungo, 2010.

Bear, Mark F., Barry W. Connors, and Michael A. Paradiso. *Neuroscience: Exploring the Brain*. Translated by Kang Bong-Gyun, Kang Kyung-Yoon, and Kwon Ou-Joo. *Shingyeong gwahak: Noeui tamgu* 『신경과학: 뇌의 탐구』. Seoul: Biomedibook, 2009.

Cassel, Jean-Christophe, Daniel Cassel, and Lilianne Manning. "From Augustine of Hippo's Memory Systems to Our Modern Taxonomy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emory: A 16-Century Nap of Intuition before Light of Evidence." *Behavioral Sciences* 3-1 (March 2013), 21-41.

Damasio, Antonio R.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Inc., 1999.

Ghetti, Simona, and Patricia J. Bauer, ed. *Origins and Development of Recollection: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and Neuro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Kim, Hoon-Seik, and Shin Hyun-Joo. *Gieokryeogui Bimil: EBS dakyupraim* 『기억력의 비밀–EBS 다큐프라임』 [The Secret of Memory: EBS Docuprime]. Seoul: Bookpulio, 2011.

Koch, Christof. *The Quest for Consciousness: A Neurobiological Approach*. Translated by Kim Mi-Sun. *Uisigui tamgu* 『의식의 탐구』. Seoul: Sigmapress, 2006.

Moore, Thomas. "Memory."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0.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11. http://www.newadvent.org/cathen/10174a.htm [accessed September 2, 2015].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Translated by Chol In-Chul. *Saenggagui jido* 『생각의 지도』. Seoul: Kimyungsa, 2004.

Park, Moon-Ho 박문호. *Noe: Saenggakui chulhyeon* 『뇌–생각의 출현』 [Brain: The Advent of

www.dbpia.co.kr

Mind]. Seoul: Humanist, 2008.

Root-Bernstein, Robert. *Sparks of Genius*. Translated by Park Jong-Sung. *Saenggagui tansaeng* 『생각의 탄생』. Seoul: Ecolibrary, 2007.

Tammet, Daniel. *Embracing The Wide Sky*. Translated by Yoon Suk-Jin and Kim Min-Kyung. *Noeui seonmul* 『뇌의 선물』. Seoul: Hongikbooks, 2009.

www.dbpia.co.kr

< Abstract >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on Memory: The Spiritual Nature and Categorization of Memory

YOO Kyoung-D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outh Korea

Memory is a faculty in the nervous system of the brain by which we remember the stored information and reconstruct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Modern neuroscience gives us an insight into how we can understand the biological function of cognition and perception.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memory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it encompasses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faith and eternal life. Memory is not only a function of the brain, but also a spiritual substance that God use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logical view of memory and that of neuroscience,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are invited to explore the meaning of memory in the context of theology.

Augustine explores the contents of memory and describes it as a repository store that allows us to recollect senses, language, desire, and eventually the truth of God. He concludes in his questions about memory that the faculty of memory is by nature not identified with God but is rather a vehicle leading us to understand eventually the meaning of time and eternity.

Thomas Aquinas distinguishes between sensory memory and intellect memory. He emphasizes intellectual memory as the principle of human activities that enables us to understand human experience of memory as subject.

After reviewing their examinations on memor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need for a deeper study in order to deal with such issues as the spiritual nature of memory, the normative categorization of memory, and the restoration of subjectivity based on memory.

Key Words *

Memory, Augustine, Thomas Aquinas, Spiritual Nature of Memory, Normative Categorization of Memory

• 투고(접수)일 : 2015. 9. 30 • 심사(수정)일 : 2015. 10. 28 • 게재확정일 : 2015. 11. 4

www.dbpia.co.kr